**헨켈코리아, 한독 상공회의소 제7회 KGCCI 이노베이션 어워드 수상**

헨켈코리아의 송도 플랜트가 한독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KGCCI 이노베이션 어워드 지속가능성 혁신(Innovation in Sustainability) 부문에서 올 해 수상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KGCCI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경영 전략으로 한국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한 기업을 시상하는 행사다.

후보자 심사와 평가는 한국인과 독일인으로 구성된 6명의 심사위원단이 혁신 수준, 시장에서의 성공여부나 가능성, 회사에 미친 긍정적 영향, 그리고 사회 편익의 정도 등 4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지속가능성 혁신(Innovation in Sustainability)’ 부문을 수상한 헨켈코리아 김영미 대표는 “’지속가능성 혁신’ 부문에서 헨켈코리아의 송도 플랜트가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헨켈은 1876년 설립된 이래 140년 이상 사업적 성공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장에 있어서도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지키고 있다. 완공을 앞두고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혁신의 솔루션으로 한국과 독일을 잇는 글로벌 선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헨켈코리아가 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속가능성 혁신 부문에 선정된 헨켈코리아의 송도 플랜트는 태양 전지 패널 및 주간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흰색 코팅으로 에어컨 사용량 감소, 단열재를 활용한 건물 외벽 뿐만 아니라 빗물관리, 열 회복 시스템, 지역난방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자원의 효율성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건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